

포교·봉사·환경보호에도 앞장

‘佛法 면면히’ 어린이포교 서원

관음사 어린이법회 **한순옥** 지도법사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사당동 관음사(주지 종해) 법당. 지도법사 선생님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인다.

한때는 한 명의 어린이 불자도 없던 관음사에서 1백 명이 넘는 어린이법회를 이끌고 있는 한 여성불자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 한순옥(45·서울 석관동) 보살.

10년 전만 해도 한 보살은 일상생활을 꾸리기에 바쁜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열성적인 군포교 활동을 하는 노보살을 만났고, 이에 감동을 받은 한 보살은 법보시 서원을 세우고 포교사 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한 보살은 이렇게 포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후 한 보살은 지난 2000년 관음사 어린이법회를 꾸리기 시작, 지금은 포교사들 사이에서 관음사 어린이법회를 만든 선봉인으로 통한다.

한 보살이 어린이 포교에 열성을 보이는

의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한 보살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게다가 기본적인 어린이 포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 보살은 이런 어려움을 가족과 주위사람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여성 특유의 친화력으로 극복해 냈다. 포교사 도반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발바닥이 닳도록 찾아다녀 찬불가 부르기, 레크리에이션, 태권무, 동시낭송,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주년 여성 도반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매달 아이들을 위한 생일잔치도 열고 있다.

"엄마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하다보니 아이들이 잘 따라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아이들을 키워낸 경험이 있는 여자에게 훨씬 적합한 일이 아닐까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제가 관음사에 포교를 위해 갔을 때 어린이 불자가 한 명도 없더군요. 이리다가 우리 대에 불법이 끊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 포교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우선 가족들

족 회원 중 10여명은 언뜻마을에서 진행하는 호스피스 과정을 수료하고 간병인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서울 경복궁 불교환경어머니회
"가정을 지키는 주부 불자들이 환경도 지켜야겠다"는 뜻에서 결성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환경위원회(위원장 정혜숙)는 폐식용유로 제작한 생채 비누를 나누어 주고 '생활 쓰레기 줄이기', '사찰 주변에 꽃·나무 심기' 등 사찰이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환경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50여명의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북한산 사찰주변의 환경실태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활동은 물론 일년에 한번 워크숍을 열기도 한다.

◎제주불교여성관음클럽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불교여성관음클럽(회장 김순희)은 96년 '관음 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두 차례 인문고와 실업고 각 1개교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한국청소년교육회의의 요청으로 1박 2일간 진행되는 청소년 예절교육의 보조교사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마산·창원 금강자비회
"나눔 기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금강자비회(회장 노화순) 회원 100여명은 마산 결핵요양원에 매월 후원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밀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장학금을 후원하기도 하는 등 저소득층과 소외이웃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데 힘쓰고 있다.



▷법회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한순옥 보살(가운데)이 불교공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명도 없던 법회 이젠 1백여명

지역서 활동하는 여성불자 모임

현재 각 지역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싸기에서부터 군포교, 복지활동, 환경보호운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의 모임이 있다.

대전지역 무의탁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모임 등불회(회장 엄정래)는 매주 주말이면 고아원이나 장애인단체를 방문해 쌀 등의 부식을 전달하고 그곳의 허드렛일을 도와준다. 등불회 회장인 엄정래 씨는 최윤희 무용단에 소속된 무용가이기도 해 노

◎광주 자비신행회

자비신행회(지도법사 현정) 회원들은 매일 115개의 도시락을 싸다. 전남 광주 지역의 임대아파트 등에 살면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도시락을 보내지 못하는 주말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밀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의 집을 찾는다. 또한 해마다 두 번 씩 실시하는 석 달 과정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살펴 주기도 한다. 3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비신행회는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활동 단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대전 등불회

노인들 끼니위해 매일 도시락 115개 준비

논산훈련소에 법당마련 군포교 지원

쓰레기 줄이기·사찰주변 꽃·나무 심기

인간치 같은 사찰 봉사 프로그램에서 공연을 선보여 왔는데, 올해 부처님 오신날은 감호소에 문화행사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논산훈련소 불교어머니회
논산훈련소 불자장병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어머니회(회장 김평남)는 20

고양시 여성불자 모임인 보현가족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이면 정성스럽게 마련한 간식과 열주, 불서 등을 가지고 9사단 신병교육대 법당인 '늘푸른 법당'을 찾는다. 평일에는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의 독거노인과 인연을 맺어 부모님처럼 돌보고 있다. 지난해 20명의 보현가

불교와 페미니즘

이혜숙(동국대 교수·사회복지학)

특별기고



불교와 페미니즘(Feminism), 왜 오늘날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가. 필자가 대학에서 <불교와 여성>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개강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백지를 주고 그 과목에 대한 소감이나 기대를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불교와 여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예상치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경전에는 특히 여성 관련 설명들이 일관되지 않고 더러는 상충하는 것으로도 보여 지는데, 그 내용이 여성에 대한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든 교설은 규범적이고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과감히 계급해방과 아울러 모두에게 공통된 도덕적 행위의 책임을 주장하였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경영전략이라고 회자되는 '상생(相生)'의 원리나, 전문가들이 개진한 세계전망 가운데 3대 화두가 '여성·환경·시민사회'라는 것과 관련해서, 필자는 그 모두가 불교적 세계관의 지표들이라고 생각한다. 즉, 환경과 인간의 상생은 이미 불교적 중생개념에 속해 있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동체적 상생은 승가이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상생은 그 몸이 단지 인연따라 지어진 것(因緣所造色)이라는 불교적 정체성으로서 성(性)역할에 대한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게 한다. 이렇듯 새롭게 강조되는 가치관들이 여성주의(feminism)적인 것이며 또한 본래 불교적인 것이라고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경전에는 특히 여성 관련 설명들이 일관되지 않고 더러는 상충하는 것으로도 보여 지는데, 그 내용이 여성에 대한 긍정이든 부정이든, 모든 교설은 규범적이고

여성잠재력 활용 불교계 혁신을

의 선동 전략을 가르치는 것쯤으로 오해되는 경향도 있었으니까 말이다.

여성연구가 여성을 위한, 여성의 권익을 회복하고 보장받으려는 목적의 여권운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 것은 분명하다. 그 때문에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 가운데서도 마치 평지풍파(平地風波)를 보는 듯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페미니즘이란 결국 몇몇 여성들이 '사내'처럼 싸워서 어떤 특혜를 얻으려는 주장이 아닌 가 하는 의심받기도 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종래의 인간관·세계관이 보다 근본적으로 내용의 전환이 필요함을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요구하는 실천철학이다.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주로 경쟁과 독점·차별의 속성을 가지는 인류문화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진단과 처방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가지는 바로 그런 가치 지향 때문에 필경에는 불교와 만나게 되어 있다고 본다. 불교는 만인평등과 무차별을 가르치고 상의상관적 공생과 화합을 가르친다. 석존께서 예컨대 당시 인도사회에 오랜 전통이었던

도 경험적인 설명으로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점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규범상으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험상으로 그만큼의 수행을 다하지 못하면 역시 남성이나 마찬가지로 여성도 중생일 뿐이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불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본성을 깨우치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페미니즘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여성만을 인정하는 원리가 아니라 남성과 함께 하는 올바른 세계의 원리이고자 한다는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정한 불자로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설계를 하고자 한다면, 불교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그에 통하는 여성주의(feminism)라는 시대적 방편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그간에 별나게 드러나지 않고 불교계를 지켜온 많은 여성불자들은 자기 잠재력에 여성주의적 자각을 더함으로써, 한국 불교계와 온 세계의 혁신에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설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 평화 성취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손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희망찬 새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제 16대 대통령후보 이 회 창

한나라당불자 국회의원 : 김태호, 김진재, 하순봉, 정재문, 김기배,
김찬우, 김영일, 박헌기, 전용원, 김용갑,
이상배, 이원형, 이해봉, 임진출, 정문화,
강신성일, 김용균, 김학송, 도종이, 손희정,
엄호성, 윤두환, 최돈웅, 이인기, 최병국, 황승민

한나라당불교신도회장 함종한 외 불교신도회원 일동

◆ 한나라당 홈페이지 : www.hannara.or.kr ◆ 한나라당 도움전화 : 전국 어디서나 ARS 700-2021 한통화에 1만원의 정성으로 세상이 편해집니다.